

강원남부지방에서 곰취의 종자생산 특성

김철주, 최수용, 한영한, 신희정, 박철호, 이기철¹⁾, 장광진²⁾

강원대학교 식물응용과학부, ¹⁾춘천교육대학교, ²⁾한국농업전문학교

고품질 곰취 종자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강원남부지방에서 곰취의 종자생산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단위면적당 생산가능한 종자수량을 예측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 삼척시 하장면 1개소, 1998년 태백시 황지1동, 연화동, 사조동 등 3개소, 삼척시 하장면 2개소, 평창군 봉평면 1개소 등지에서 지역별로 결실기에 채집한 꽃대(1개소당 10개)를 이용하여 총총포수, 수과를 갖는 총포수, 결실율을 조사하고 10a당 종자수량을 추정하였다.

곰취 1주당 총포수는 지역에 따라 19개로부터 32개까지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태백시 연화동과 삼척시 하장면 2개소의 곰취가 다른 지역의 곰취보다 주당 총포수가 많았다. 그러나 수과를 갖는 총포수 즉, 유효총포율은 주당 총포수가 적은 지역의 곰취에서 오히려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배지 토양의 비옥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당 총수과수는 태백시 연화동과 평창군 봉평면의 곰취가 각각 259개와 252개로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결실율은 주당 총232개의 수과를 갖는 삼척시 하장면의 곰취가 73%로서 가장 높았다. 삼척시 하장면에서 결실율별 총포출현빈도를 년차별로 비교하면 97년에는 결실율 0-10%의 범위가 전체 총포의 69%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98년에는 총결실율별 총포출현빈도가 급간별로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17.1%의 빈도를 나타냈다.

지역별 곰취종자의 100립중은 태백시 연화동 곰취가 0.56g으로 가장 높았고 평창군 봉평면 곰취가 0.41g으로 가장 낮았다. 100립중의 평균은 0.48g이었다. 추정된 10a당 종자수량은 삼척시 하장면 1지역의 곰취가 13.2kg으로 가장 많았고 태백시황지동 곰취가 5.0kg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배환경 및 비배관리의 차이가 곰취의 종자형성 및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지역에서의 체계적인 인위적 생육환경의 제어에 의한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한 지역별 종자생산기술의 확립이 요구됨을 시사한다.